

물성과 환영: 조선시대 호·표피 운용과 그 시각적 재현*

金秀珍**

- | | |
|---------------------------------|--|
| I. 머리말 | III. 민간에서의 호·표피 활용과 시각화 |
| II. 국가 차원에서의 호·표피 수요와
시각적 재현 | IV. 결론을 대신하여: 호·표피와 그 시각적
재현의 문화사적 의의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을 활용한 역사와 그것을 시각화한 전통을 검토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관복초상화에 재현된 호·표피의 시각화 방식, 호·표피 방식을 통해 왕실구성원의 자리를 표식한 방식, 조선 후기에 병풍 형식으로 제작되어 크게 유행한 표피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왕실이 호·표피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검토했다. 여기서는 국가가 민생을 위하여 운영한 捉虎 제도를 검토했으며, 조선 왕실이 외교 예물이자 조공품으로서 호·표피를 활용한 양상을 살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행사에 활용된 儀裝으로서의 호·표피와 왕실이 功臣에게 하사했던 호·표피의 의미에 대해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기록화 및 사대부 초상화에 호·표피가 재현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III장에서는 민간에서 호·표피가 활용되었던 방식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호·표피의 소유 및 대여가 필요했던 배경을 살피고, 표피도 병풍이 등장한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조명했다. 마지막에는 20세기에 한반도에서 호표가 점했던 상징적 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4280).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학술연구교수

미와 호·표피가 유통된 양상에 대해 분석했다. 이러한 시도가 사치품이자 위세품이었던 맹수의 가죽이 유통되고 시각화된 까닭을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시각적 환영, 호피, 표피, 시각주의, 촉각성

I. 머리말

인류가 맹수의 가죽을 몸에 두르거나, 덮거나 깔고 앉은 역사는 유구하다. 毛皮는 인류가 추위로부터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융맹한 우두머리의 표상으로 활용해 왔다. 다만 생태 환경에 따라 맹수의 종류가 사자 혹은 호랑이일 수도 있고 표범이나 재규어가 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는 오랜 기간 호랑이와 표범이 맹수의 지위를 차지했다. 호랑이와 표범을 합쳐 虎豹라 불렀으며, 때로 명확한 구분 없이 범으로 통칭했다. 호표의 가죽인 虎皮와 豹皮는 환금성 있는 사치품이었을 뿐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을 위한 교역물이자, 특권층만이 소유하는 위세품(prestige goods)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을 활용한 역사와 그것을 시각화한 전통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상 호·표피를 그림으로 그린 데에는 몇 가지 특수한 용도와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관복초상화에 재현된 호·표피의 시각화 방식, 호·표피 방식을 통해 왕실구성원의 자리를 시각화 방식, 조선 후기 병풍 형식으로 된 표피도가 유행한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왕실이 호·표피 수요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가 민생을 위하여 운영한 捉虎 제도를 검토할 것이며, 조선 왕실이 외교 예물이자 조공품으로서 호·표피를 활용한 양상을 볼 것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행사에 활용된 儀裝으로서의 호·표피와 왕실이 功臣에게 하사했던 호·표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기록화 및 사대부 초상화에 호·표피가 재현된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민간에서 호·표피가 활용되었던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호·표피의 소유 및 대여가 필요했던 배경을 살피고, 표피도 병풍이 등장한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한반도에서 호표가 접했던 상징적 의미와 호·표피가 유통된 양상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치품이자 위세품이었던 맹수의 가죽이 유통되고 시각화된 까닭과 그 의미를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모피의 촉각성을 시각화하는 차원에서 호·표피 그림이 物性和 幻影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에 대해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국가 차원에서의 호·표피 수요와 시각적 재현

1. 착호 제도와 국가의 호·표피 관리

조선 왕실은 국초부터 민생 안정을 위해 捉虎에 적극 관여했다. 이는 무엇보다 국가가 호표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및 가축의 희생을 막고자 한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조선 초기부터 호표를 전문적으로 잡아 虎患을 막는 捉虎甲士 제도를 운용했다.¹⁾ 지방의 군현에서도 捉虎人을 육성했는데 그 숫자가 전국에 걸쳐 최대 1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1421년 착호갑사의 정원이 40명이었던 데에 반해 1485년에 반포된 『經國大典』에 따르면 그 수가 440명까지 늘어났다.²⁾ 이후 공식 집계된 것만 현종 15년(1674) 때 5000명, 숙종 22년(1696)에는 1만1000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호표 사냥이 꾸준히 국가의 주도로 지속된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이 전제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중국 및 일본에 보낼 외교 예물과 왕실 내부 소용의 호·표피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호표는 가축 뿐 아니라 머리와 발톱이 온전할 때 그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착호인들은 호표의 머리와 가축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했다. 때로는 신선도가 유지된 ‘虎頭’의 확보를 위해 호표의 생포가 적극 권장되기도 했다. 농경을 근본으로 한 조선 사회에서 기우제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의례였다. 여러 가지 기우 의례 중 하나는 ‘沈虎頭’라는 降雨 행사였다.³⁾ 침호두는 비를 관장하는 용을 자극하기 위해 호두를 강에 빠뜨리는 의례로서 왕실이 서울 광나루터에서 주최한 역사가 확인된다.⁴⁾ 이를 위해서는 호두의 적시 확보가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호표의 생포는 더욱 중요했다.

그런데 17세기를 거치며 호·표피가 貢納의 대상이 되자 몇 가지 폐단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 관리들이 호·표피의 상납에 대한 부담을 백성들에 전가한 것이

1) 조선 초기부터 국가가 捕虎 정책을 펼친 데에 대해서는 김동진, 『조선전기 포호정책 연구』, 선인, 2009, 53~138면.

2) 김동진, 앞의 책, 87면, 110면.

3) 침호두에 대해서는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2002, 171~172면.

4) 침호두는 왕실 차원에서만 설행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중요 水源에서 민간 차원으로도 행해졌다. 침호두와 관련한 기사는 『성종실록』 권44, 성종 5년(1474) 윤6월 10일 기사; 『성종실록』 권106, 성종 10년(1479) 7월 5일(기미).

다.⁵⁾ 1448년 『세종실록』에 따르면 당시 대호피의 가격이 면포로 20여 필이었으며, 표피는 면포 5~60필, 혹은 7~80필 정도에 값어치가 형성되어 있었다.⁶⁾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크기와 상관없이 호피보다 표피가 2~3배 이상 가격이 높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불과 50년 후인 1497년 『연산군일기』를 보면 호·표피의 가격이 모두 크게 올랐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고을 수령들이 호랑이를 잡지 못할 경우 濟用監 공납을 위해 민간에서 代價를 거두어 호피를 상납했다. 그런데 ‘예전에는 호피 한 장의 값이 綿布 30필이었는데 지금은 80여 필에 달하니 백성의 괴로움이 크다’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⁷⁾ 이는 불과 50년 전보다 호·표피 가격이 2.5배 이상 올랐음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제용감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을 확보하는 관청으로 중국에 진현하는 공물을 관할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왕실은 내부 수요 및 조공 용도로서 호·표피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꾸준히 애써야 했던 것이다.

2. 조선의 외교 예물 및 조공품으로서의 호·표피

국가 차원에서 호·표피의 확보가 중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 및 교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왕실은 명·청 황실에의 조공, 대마·유구·일본으로 보낼 예물로서 호·표피를 확보했다. 아래의 <표 1>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호·표피 관련 기사’는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호·표피가 언급된 기사의 건수와 그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는 크게 일본으로 보낼 예물, 중국으로 보낼 조공물, 왕실 내수용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연관된 기사의 성격이 1650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15세기에 해당하는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예종, 성종까지는 조공품이자 외교 예물로서 호·표피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면 외교 관련 호·표피에 대한 언급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대에는 중국 및 일본 관련 기사가 현저히 줄어들다가 1650년 이후로는 거의

5) 풍기군사 金孝給이 표피의 값을 지나치게 높이 매겨 많게는 80여 필로 계산한 것(豐基郡事金孝給徵貢獻豹皮價于民間, 多至八十餘匹)이 문제가 되었다. 세조실록 권12, 세조 4년 3월 18일(을사).

6)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0월 8일(신유).

7) 『연산군일기』 권25, 연산 3년 7월 30일(기사).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공신에게 호·표피를 하사하거나 왕실 내부 소용으로 호·표피를 언급하는 기사가 꾸준히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호·표피 관련 기사

연대	재위	종류	일본	중국	내수	건수	총
1398~1400 (2년)	정종	호피	2	0	0	2	3
		표피	1	0	0	1	
1400~1418 (18년)	태종	호피	8	0	7	15	29
		표피	8	2	4	14	
1418~1450 (32년)	세종	호피	39	0	7	46	124
		표피	34	24	20	78	
1450~1452 (2년)	문종	호피	4	1	2	7	18
		표피	4	0	7	11	
1452~1455 (3년)	단종	호피	2	0	1	3	9
		표피	2	0	4	6	
1468~1469 (1년)	예종	호피	0	0	1	1	7
		표피	0	2	4	6	
1469~1494 (25년)	성종	호피	39	0	45	84	214
		표피	38	15	77	130	
1494~1506 (12년)	연산군	호피	2	0	8	10	16
		표피	2	0	4	6	
1506~1544 (38년)	중종	호피	0	1	3	4	21
		표피	1	1	15	17	
1544~1545 (1년)	인종	호피	0	0	0	0	1
		표피	0	1	0	1	
1545~1567 (22년)	명종	호피	2	0	5	7	9
		표피	0	0	2	2	
1567~1608 (41년)	선조	호피	5	2	12	19	49
		표피	5	4	21	30	
1608~1623 (15년)	광해군	호피	1	3	5	9	18
		표피	2	1	6	9	

1623~1649 (26년)	인조	호피	0	3	14	17	54
		표피	0	7	30	37	
1649~1659 (10년)	효종	호피	0	0	11	11	20
		표피	0	0	9	9	
1659~1674 (15년)	현종	호피	0	0	6	6	23
		표피	0	1	16	17	
1674~1720 (26년)	숙종	호피	1	0	26	27	46
		표피	1	0	18	19	
1720~1724 (4년)	경종	호피	0	0	1	1	1
		표피	0	0	0	0	
1724~1776 (52년)	영조	호피	0	0	63	63	90
		표피	0	0	27	27	
1776~1800 (24년)	정조	호피	0	0	16	16	35
		표피	0	0	19	19	
1800~1834 (34년)	순조	호피	1	0	5	6	14
		표피	1	0	7	8	
1863~1907 (44년)	고종	호피	1	0	7	8	13
		표피	0	0	5	5	
1907~1926 (19년)	순종	호피	1	0	0	1	2
		표피	1	0	0	1	
총계			208	68	540	816	816

이는 적어도 1400년부터 1650년까지인 250년 동안 호·표피가 외교 예물이자 공물로서 가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시사한다. 1451년 『문종실록』에도 제용감에서 확보한 표피는 값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니 進獻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한 내용이 있다.⁸⁾ 이는 호·표피 조달이 항시 용이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가격 변동도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8) 『문종실록』 권6, 문종 1년(1451) 2월 4일(계유).

앞서 언급했다시피 15세기에 면포 20필 정도였던 호피의 가치가 16세기가 되지 80필까지 뛰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호·표피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국가는 이에 대한 代納을 허용했다. 이 밖에 牛疫의 발생으로 인해 호표의 개체수가 줄어들거나 호표가 남획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급기야 조공을 위한 수량이 부족하자 女眞으로부터 호·표피를 구입하여 대체한 경우도 생겼다.⁹⁾ 결국 17세기 중엽부터는 청나라 조공품에 貂皮 및 鹿皮 각 100장, 수달피 400장으로 호·표피를 대신하여 갈음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왕실은 조선 초부터 중국 황실의 聖節과 元旦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통상 호피 및 표피를 각 6장 혹은 10장씩 진상했다.¹⁰⁾ 그런데 병자호란 전후에는 이것이 한 번에 50~60장까지 늘었었던 사례도 있다.¹¹⁾ 1638년 順治帝가 등극한 이후로는 호피 5장, 표피 15장으로 그 수량이 크게 경감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선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호·표피의 양과 중국에서 요구한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¹²⁾

아울러 조공품과 예물품 마련을 위해서는 상처 없는 가죽이 필요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다. 실록에는 “제용감에서 중국에 진헌하는 표피·수달피와 일본에 내려 보내는 호피는 반드시 머리와 꼬리와 네 개의 발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만 바치는 것만이 가능하다(今濟用監, 若進獻豹皮、水獺皮, 及日本賜送虎皮, 必以頭、尾、四足完具者納之, 可矣)는 내용이 보인다.¹³⁾ 이는 국가가 호표의 가죽이 상하지 않게 잡아서 머리, 꼬리, 발톱 부분을 모두 최상의 품질로 유지하려 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실제 호표는 가죽의 상태, 색채, 크기를 기준으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호피 한 장이 銀 2냥이면 털이 온전하고 발톱이 없는 경우 은 1냥 5전이 되었다. 표피 또한 2냥일 때 털이 빠진 경우 1냥 6전으로 감한 것이 확인된다.¹⁴⁾

9) 『성종실록』 권14, 성종 3년(1472) 1월 8일(을사).

10) 서인범, 「조선(朝鮮) 호피(虎皮)와 표피(豹皮)의 생산·유통」, 『명청사연구』 50, 명청사학회, 2018, 27~30면.

11) 1627년 호피 60장을 청나라에 보낸 것은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1627) 2월 15일(임자); 1636년에 표피 50장을 보낸 데에 대해서는 『인조실록』 권32, 인조 14년(1626) 2월 4일(기묘).

12) 서인범, 「淸 勅使·通官에의 조선 호피·표피 사여와 무역」, 『동국사학』 69,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 105~106면, 114~115면.

13)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1451) 1월 10일(경술).

대중국 조공품 외에도 외교 예물로서 일본에 보낸 호·표피의 수량도 적지 않았다. 일본에 보낸 호·표피에 대해서는 『高麗史』에서도 관련 기록이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유구국, 대마도, 일본 본토에 꾸준히 호·표피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호랑이가 자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았다. 倭館을 통해 무역되는 물건 가운데에는 호·표피 자체 뿐 아니라 虎豹圖에 대한 수요도 꾸준했다.¹⁵⁾ 아울러 일본 幕府에서 제작한 기록화 계열에서 주요 인물의 방식으로 등장하는 그림도 꾸준히 제작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일본으로 보낸 호표의 수량은 한번에 1~10장 정도였다. 그런데 실재는 이러한 正史의 기록보다 더 많은 수량이 일본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655년 일본 通信使의 從事官으로 합류했던 南龍翼(1628~1692)은 일본에 호피 15장, 표피 20장을 가져갔다는 기록을 남겼다.¹⁶⁾ 아울러 1711년 通信副使로 일본에 다녀온 任守幹(1665~1721)의 기록에서도 호피 15장, 표피 20장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보인다.¹⁷⁾ 이를 통해 조선 왕실을 방문한 일본 사신에게 준 호·표피의 수량보다 통신사를 통해 전해진 수량이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조공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던 對중국 물품 교역에 비해 비정기적이었던 對일본 교역의 경우 한번에 가져가는 수량 자체가 더 많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 호·표피를 보낸 것은 비록 점차 수량이 줄어들지만 조선 말기까지 그 관행이 계속되었다.¹⁸⁾

3. 조선 왕실에서의 호·표피 활용과 지위 표상

조선 왕실에서는 행사에 소용되는 깔개나 덮개의 용도로 호·표피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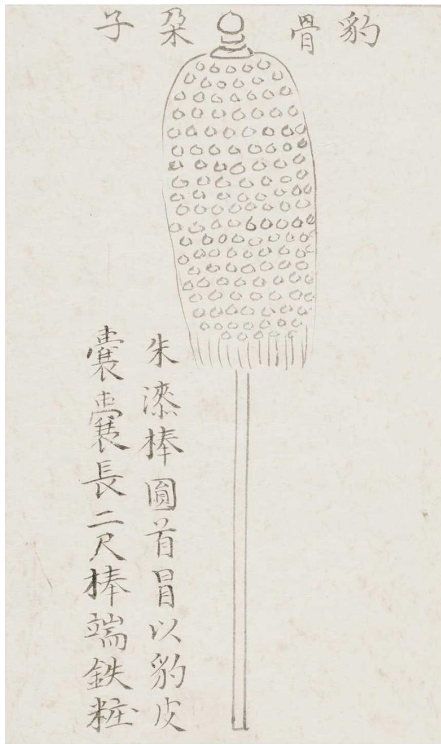
14) 서인범, 앞의 2018 논문, 41면.

15) 박성희, 「18·19세기 동래 왜관 수출화의 제작과 유통: 虎圖와 鷹圖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31, 한국미술연구소, 2010, 79~84, 89~92면; 박성희, 「18, 19세기의 한일 회화교류와 대마도 및 동래 왜관 관련 신자료의 미술사적 분석: 조선 후기 대일교역용 회화에 대한 기존 논의의 보완을 위한 소론」,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198~201면.

16) 민족문화추진회 편, 『(國譯)海行摠載』, 民族文化推進會, 1977, 『扶桑錄』 한국고전번역원 DB.

17) 민족문화추진회 편, 『(國譯)海行摠載』, 民族文化推進會, 1977, 『東槎日記』 한국고전번역원 DB.

18) 조선 말기에 일본에 보낸 호·표피에 대해서는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1877) 11월 11일(임술); 『순종실록부록』 권14, 순종 16년(1923) 11월 24일(양력).



〈그림 1〉 표골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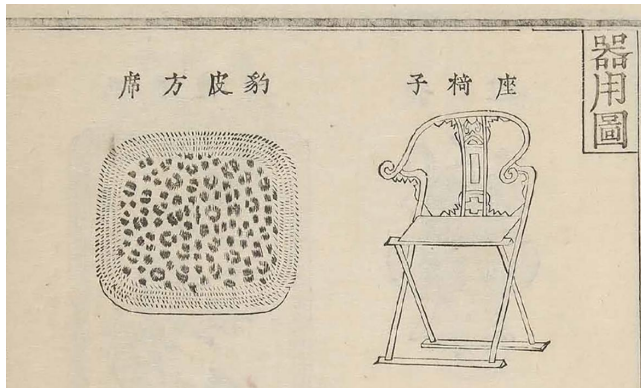
호·표피와 관련한 기록상에는 ‘표피 阿多介’ 혹은 ‘표피 阿多叱介’라는 표현이 주로 보이며, ‘豹皮褥’와 ‘豹皮帳’, ‘豹皮心虎皮邊獐皮裏坐子’라는 용어도 보인다.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호랑이와 표범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 호랑이 혹은 범으로 불렀다 알려져 있지만, 왕실 문서에서 호표는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 및 일본에 보내는 경우 호랑이와 표범을 섞어서 보내는 경우가 상례였지만, 왕실의 내수용일 경우 표피를 더 높게 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표피가 호피보다 부드럽고 무늬도 더 아름답다 여겨졌다. 1872년 『고종실록』에서도 포상을 하는데 있어 도제조인 金炳學에게 대표피 1승, 겸제조 金炳國에게 표피 1령, 제조 김세균에게 호피 1령을 내린 것이 확인된다. 공이 제일 큰 이에게 대표피, 그 다음이

표피, 그 다음이 호피인 것은 표피의 가치를 호피보다 높게 친 것을 방증한다.¹⁹⁾

실제로 왕실에서 사용한 물건 가운데 시각물로 남아 있는 것은 왕실의 행사를 그런 기록화, 의궤의 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에 참석하는 왕실구성원을 위한 의장으로서 표피방석, 豹骨朵子, 豹皮帳이 시각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표피 방석은 화문석을 일컫는 滿花席과 함께 왕실 구성원들의 자리에 흔히 배설되었다. 호피는 가죽의 재질이 두껍고 거칠어서 덮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사용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방석 용도로는 주로 표피가 선호되었다. 실제로 표피는 그 무늬가 아름답고 가죽의 재질이 부드러워서 상품 가치도 높았다. 이러한 표피방석의 경우 의궤의 배설편에 관련 기록이 전하며, 圖說에서도 시각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아울러 궁중 기록화에서도 왕이 앉는

19) 『고종실록』 권9, 고종 9년(1872) 9월 20일(신축).

어좌 외에 왕실 여성 혹은 왕세자가 앉는 자리나 행사의 절차상 왕실구성원이 임시로 머물거나 쉬기 위해 마련한 大次, 便次, 小次에 표피 방식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표현했다(〈그림 3〉).



〈그림 2〉 1827년 『戊子進爵儀軌』 豹皮方席



〈그림 3〉 1829년 〈己丑進饌圖〉의 어좌 옆 대차의 표피 방식

전통 시대에 호·표피는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계급에 따라 매우 제한된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감각할 수 있던 대상이었다. 호·표피를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었던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과는 다른 차별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왕실의 기록화에는 행사에 참석하는 구성원의 형상을 그리지 않는 관습적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병풍이나 방석의 재현을 통해 그 존재를 대체했는데, 이를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병풍이 ‘일월오봉도’ 혹은 ‘십장생도’ 병풍이다. 여기에 표피방석이 더해져 행사 참석자의 위신을 세우고 그들을 대신한 형상의 위치를 표식했다.

4. 조선의 공신 관리와 초상화 속 호·표피

조선 초기부터 왕실은 공적이 있는 신하를 치하하기 위해 선물을 내리곤 했다. 이 때 자주 선택된 물품이 말과 모피였다.²⁰⁾ 그 중 가장 높이 친 것은 안장을 갖춘 숙련된 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 말과 호피, 표피, 狐皮, 貂皮였다.²¹⁾ 그 중에서도 상소를 올리거나 간언을 한 신하에게는 호피나 표피를 내린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대학자가 皐比라는 이름의 호피 방석을 깔고 강학을 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록에서 상소를 올리거나 학문의 성과가 뛰어난 신하에게 호·표피 방석을 내리면서 이를 ‘고비’로 표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²²⁾ 다만 왕실 문헌에는 그저 호피 혹은 표피로만 기록된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정확히 아다개, 褥, 坐子 중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공신에게 호·표피를 내린 기록은 산견되나, 정작 관복초상화에 호·표피가 묘사된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15~16세기에 제작된 공신상 계열인 孫昭(1433~1484), 吳自治(1426~미상), 邊修(1447~1524), 申用漑(1463~1519), 李堦(1469~1517), 朴淳(1523~1589), 鄭琢(1526~1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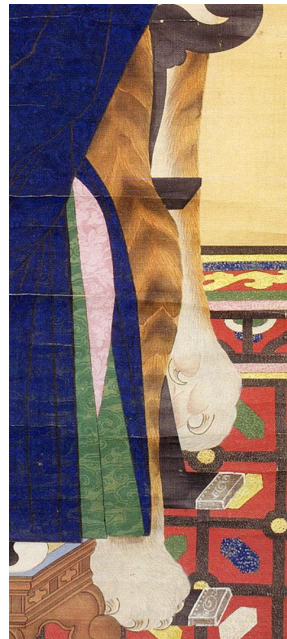
20) 대표적인 예로 1487년 『성종실록』 기사에 따르면 春宮都監 공사가 끝나자 이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鞍具馬, 熟馬, 兒馬에 이어 호피를 하사한 것이 확인된다. 『성종실록』 권205, 성종 18년(1487) 7월 4일(신축).

21) 예를 들어 權曄에게 포상을 하면서 호피·표피·麕皮 각 1장을 내렸다. 그 아래 여섯 承旨에게는 큰 녹피 1장을 내렸다. 『세조실록』 권30, 세조 9년(1463) 2월 9일(무진).

22) 대표적인 예로 『효종실록』 권5, 효종 1년(1650) 윤11월 4일(계미); 『영조실록』 권11, 영조 3년(1727) 3월 14일(신축).

黃廷彥(1532~1607), 李山海(1539~1609), 權應銖(1546~1608) 등의 초상화에는 의자에 호피나 표피가 깔린 도안이 등장하지 않는다. 1636년 중국에서 제작해 온 것으로 논의되는 金堉(1580~1658)의 초상화 정도에서 호피가 깔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南以雄(1575~1648) 초상〉도 1646년 초본이 바탕이 된 것인데, 호피를 선염하여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²³⁾

이에 반해 조선 후기가 되면 초상화 속 주인공이 호·표피를 깔고 앉은 좌상으로 묘사되는 사례가 증가한다. 1714년에 英祖가 왕위에 오르기 전인 21세 시절에 제작된 〈延祚君 초상〉에는 수준 높은 호피의 묘사가 등장한다(〈그림 5〉). 화재로 인해 일부가 손실되긴 했지만 호랑이의 꼬리와 발톱을 정교하게 묘사하는 데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랑이의 발은 암갈색, 황토색, 검정색으로 줄무늬를 정교하게 묘사한 후 세필로 흰 털을 한 올씩 쳐서 섬세함을 살렸다. 이렇게 호피와 표피가 들어간 초상화 형식은 18세기 전반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²⁴⁾ 예를 들어 柳綴(1678~1726년 이후)의 초상화에 보이는 호랑이 가죽 묘사와, 발 받침대 및 돛자리 문양은 이러한 요소들이 영조 대 초상화의 전형적인 도상으로 정착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후 南九萬(1629~1711), 李德成(1655~1704), 成壽雄(1659~1718), 吳載純(1727~1792), 姜世晃(1713~1791), 金正禧(1786~1856), 李晙應(1820~1898)의 초상화에서는 좌대 위에 표피가 놓인 모습을 확인



〈그림 4〉 〈남이웅 초상〉의 호피 부분



〈그림 5〉 〈연잉군 초상〉의 호피 부분

23) 문화재청 편, 『한국의 초상화: 역사 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놀와, 2007, 144~147면.

24) 관복본 초상화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호피 깔린 의자 도상에 대해서는 조선미, 『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 문예출판사, 2007, 259면.

할 수 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호·표피를 하사했던 일이 유독 많았던 덕인지, 정조 대의 관복 본 초상화에도 표피 도상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 중 영조 및 정조 대에 여러 차례 호피와 표피를 하사 받은 공신으로서 蔡濟恭(1720~1799)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제공의 초상화는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제작되었다. 그 중 1784년과 1791년에 제작된 관복본은 모두 표피를 깐 의자 위에 앉은 모습이다. 채제공이 호피와 표피를 하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총 6건의 기록이 확인된다. 가장 이른 시기인 1758년에는 왕실의 출판 일을 담당한 공적으로 호피 한 장을 받았다.²⁵⁾ 1768년에는 翼陵의 忌晨祭에 참석한 공으로 호피 한 장을 받았다.²⁶⁾ 1772년에는 晝講에 참석한 공으로 호피 1장 받았으며, 1790년 宗廟署의 도제조로서 수고를 치하 받아 대표피 1장을 받았다.²⁷⁾ 이후 1795년과 1796년에는 화성 축성에 공을 세워 각기 호피와 대표피 1장씩을 수령했다.²⁸⁾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초상화에 재현된 표피가 실제 채제공이 하사 받았던 소장품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1790년에 하사 받은 표피가 1791년 초상화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초상화에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호표 가죽의 묘사에서 머리, 꼬리, 발, 발톱을 다 살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몸통 전체의 가죽을 훼손 없이 그린 경우, 머리는 제외하고 몸통과 꼬리만 그린 경우도 있다.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申應周(1747~1804) 초상〉, 경기도박물관에 위탁되어 있는 〈金樸(1653~1719) 초상〉은 머리와 꼬리가 모두 묘사된 대표 작례이다(〈그림 6〉). 〈李鍾林(1857~1925) 초상〉처럼 표피의 묘사에 공을 들여 터럭 한 올도 같게 그린다는 ‘一毫不似’를 실천한 작품도 있다(〈그림 7〉). 이렇게 공을 들인 털의 묘사는 주인공이 가진 사회적 권위 및 지위를 강조하면서 초상화의 수준을 일신시켰다.

25) 『영조실록』 권91, 영조 34년(1758) 6월 10일(갑자).

26) 『영조실록』 권111, 영조 44년(1768) 10월 25일(기묘).

27) 『영조실록』 권118, 영조 48년(1772) 4월 29일(갑오);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1790) 7월 30일(무신).

28) 『영조실록』 권42, 정조 19년(1795) 윤2월 13일(을미);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9월 10일(임자).



〈그림 6〉 〈신응주 초상〉의 호두 부분



〈그림 7〉 〈이종림 초상〉의 표피 부분

사실상 관복본 초상화는 주인공의 인물과 복식 표현에 있어 사사로운 變奏를 시도하기 어려울 만큼 전통과 관습이 강하게 작동하는 장르이다. 특히 공신 초상의 경우 왕실의 제작 지원이 따랐기 때문에 기존의 도상이 가진 정형성을 훼손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세팅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지위, 학식, 개성을 표현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인 시각 코드만이 선택되었다. 그 가운데 호·표피는 국가의

통제 하에 유통된 위세품이었던 까닭에서 특권층만이 하사받고 전유하는 조형 요소이자 필수적인 도상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렇게 호·표피는 배타적 특권과 상향 권력예의 욕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실물 같은 감각을 전달하는 것은 화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초상화가 그 어떤 장르보다 호·표피의 촉각성을 시각화하는 데에 집중한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Ⅲ. 민간에서의 호·표피 활용과 시각화

1. 민간에서의 호·표피 소유 및 대여



〈그림 8〉 1886년 김규식(1881~1950)

호·표피는 비단 왕실의 행사에서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辟邪를 위한 덮개와 권위를 표상하는 깔개로 인기 있게 사용되었다. 깔개류는 특히 19세기에 유행했던 평생도와 행려풍속화 류에서 사대부가 타는 藍輿 묘사에도 자주 보인다. 아울러 사진 기술이 유입되면서 표피를 깔 의자에 앉은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정형화 된 세트로 사용되었다. 1886년 金奎植(1881~1950)을 촬영한 사진과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1904~1905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인 잭 런던(Jack London, 1876~1916)이 촬영한 남성의 사진 속에서도 표피 좌석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그림 9〉). 아울러 민간에서 호피는 혼례 때 신부가 타는 가마에 올리는 덮개로 활용되었다(〈그림

10〉). 이 때 호피는 혼인에 앞서 사악한 것을 막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박동(현재의 종로구 수송동)에 살던 閔泳韶(1852~1910)의 집안에 사람이 찾아와 서상궁의 집에서 혼사에 쓰기

위해 호피와 인물병풍을 빌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 물건들을 훔쳐간 일이 발생했다.²⁹⁾ 이는 당시 호피가 소유·대여·절도의 대상이 되리만치 환금성과 희소성을 가지는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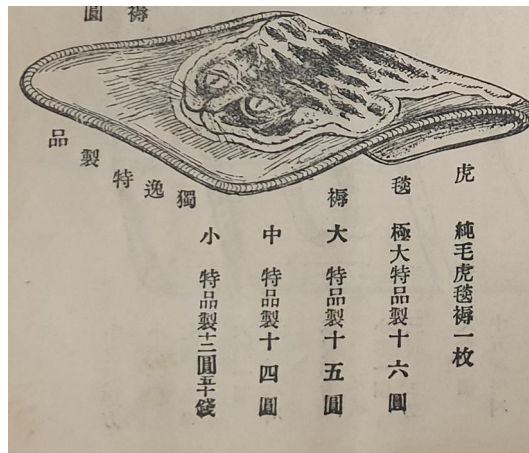
〈그림 9〉 1904-1905년 잭 런던 촬영



〈그림 10〉 1917년 훈례용 가마 위의 호피 덮개, 수원

29)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3일.

19세기 후반부터 증기선과 기차를 통해 歐美의 물건이 조선에 흘러 들어오자, 호·표피의 대체재로서 독일산 용으로 만든 호피 무늬 가마 덮개의 인기가 높아졌다. 실제 유물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등에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26년에 경성 종로 2가에 있던 계림상회에서 작성한 카타로그를 보면 진짜 호피와 호피담요덮개는 모두 婚具로서 판매되고 있었다. 카타로그에 따르면 중국 및 한국산 호피는 80원에서 8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독일산 순모 호랑이 담요는 크기에 따라 12원 50전에서부터 16원까지였다. 진짜 모피가 독일산 대체품의 5배에서 60배의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다(<그림 11>).³⁰⁾ 이러한 사례는 일생 의례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혼인에 다양한 예산에 맞춘 혼구가 준비되었으며, 설령 대체재를 사용할지언정 호피를 가마 위에 덮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11> 1926년 계림상회에서 판매한 독일산 순모 호랑이 담요

이와 관련하여 한양의 市廛 가운데 賁物廛과 金輶賁家の 영업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세물전은 혼례와 상례에 필요한 기물을 민가에 대여해주는 업소였으며, 금교세가는 종친 및 공주·옹주의 舊第를 혼인을 앞둔 신부집에 빌려주는 곳이었다.³¹⁾ 이러한

30) 『계림상회영업목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서울역사박물관 측에 감사드린다.

31) 세물전에 대해서는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점포의 존재는 경제력을 갖춘 경우라면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왕실 소용품과 그에 준하는 물건을 대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곳에서 호·표피를 빌려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혼례에 사용하는 일은 흔히 일어났다. 이는 비록 호·표피를 직접 소유한 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여의 방식이라든가 그것을 대체한 도안이 들어간 담요를 통해 그 수요를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병풍을 통한 호·표피의 시각적 저변화

민간 차원에서 호·표피에 대한 선호가 저변화 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현상은 표피도 병풍의 유행이다. 18세기 이후 왕실에서 유행했던 요지연도, 백동자도, 광분양행락도, 십장생도, 호렵도, 해학반도도 등은 시차를 두고 민간에 흘러 들어가 민화로 재창조 되곤 했다. 궁중 회화로 먼저 제작되기 시작한 이러한 작품군은 왕실 문헌에 그 제목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최고급 안료로 제작한 작례들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화면 전체를 표피로 가득 채운 표피도 병풍은 왕실 문헌에 그 畫題가 등장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작품군에 사용된 거친 안료와 종이의 수준을 고려할 때 대부분 19~20세기에 민간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사실상 이 작품군에는 화가의 낙관이 있는 경우도 없고, 이른 시기 소장 정보를 가진 사례도 확인하기 어렵다.³²⁾ <표 2> ‘표피도 병풍의 목록과 세부’는 표피도 총 16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는 이 장르에는 호피도가 없으며 오직 표피도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초상화에서 드물게나마 호피의 묘사가 이루어졌던 것과 변별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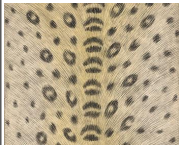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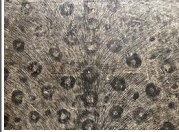
아울러 <표 2>는 크게 표범의 가죽 패턴만으로 채운 9건과 표범의 머리를 포함해서 그린 7건으로 양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장르에 보이는 큰 특징은 표피 털의 묘사에 있어 초상화가 달성한 사실적인 촉감 묘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상화 속

2000), 234면; 조영준, 『시폐: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115, 311면. 금교세가에 대해서는 고동환, 앞의 글, 239~240면; 조영준, 앞의 책, 29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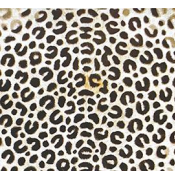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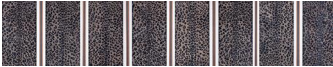
32) 소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유물은 4건이다. 표2-2를 수집한 이는 미국인 로버트 마티엘리(Robert Mattielli, 1925년생)로 1958~1988년 사이에 이 유물을 한국에서 수집했다. 표2-7을 수집한 이는 세종대학교 설립자 주영하(1912~2011)·최옥자(1919~2019) 부부, 표2-13와 표2-14를 수집한 이는 화가 이우환(1936년생)인데 이들은 모두 1970년대에 호피도 유물을 수집한 것이 확인된다.

호·표피 묘사는 여러 종류의 세필을 사용해 겹겹이 털을 쌓으면서 그렸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의 안료를 중첩하여 털의 물성(materiality)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표피도 병풍 장르의 경우에는 속털과 겉털을 겹으로 쳐서 표피의 입체적인 묘사에 집중한 다든가 여러 색을 써서 촉감을 살리려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紙本에 먹을 기조로 하여 표피의 패턴을 정형적이면서도 도안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생한 촉각보다는 보는 이의 시지각(visual perception)이 표피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표 2>의 1~4에 해당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던쉬니처박물관(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소장본, 마이아트옥션 37회 출품본, 통영시립박물관 소장본의 경우 바탕 위에 털을 한올 한올 친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겹의 안료와 서로 다른 굵기의 붓을 사용하여 겹겹이 완성한 초상화의 수준 높은 털 묘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5~16번이 보여주는 그래픽화 된 표피 도안은 일종의 패턴을 시각화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의 경우 표피 패턴이 도안화 된 측면이 커서 작가가 표피의 촉각적인 물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관심이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9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본은 언뜻 보기엔 병풍이지만 화면 중간에 문이 열리는 여닫이문이 고안되어 있어 특정한 가옥 壁藏 크기에 맞게 주문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12>). 이는 도안화 된 패턴이 마치 일종의 도배지처럼 고안된 까닭을 설명해준다.

〈표 2〉 표피도 병풍의 목록과 세부

소장처 및 유물정보		도판	세부	豹顔의 유무
1	표피도 8폭 병풍, 60.3x41.0cm, 국립중앙박물관 (건희4122)			×
2	표피도 6폭 병풍, 지본수묵, 177.8x382.9cm, 미국오리건대학교 조던쉬니처박물관			

3	표피도 8폭 병풍, 지본수묵, 각97.5×41cm, 마이아트옥션37회 (2020.9 출품)			
4	표피도, 지본수묵, 95.5×47cm, 통영시립박물관			
5	표피도 8폭 병풍, 지본수묵, 128×395cm, 가나아트			×
6	표피도 8폭 병풍, 지본수묵, 99.7×41cm,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987)			
7	표피도 8폭 병풍, 유물 정보 미상 세종대학교박물관			
8	표피도 8폭 병풍, 지본담채, 각176×51cm, 마이아트옥션38회 (2020.12 출품)			
9	표피도 4폭 여담이문 병풍, 지본수묵, 198×205cm, 국립민속박물관			×

10	호피도 6폭 병풍, 유물정보 미상, 프랑스국립기메동양 박물관			×
11	호피도 4폭 병풍, 지본수묵, 126.6×39.5cm, 국립중앙박물관 (건희4199)			×
12	호피도, 109×67cm, (전호태 · 유경희, 『미리 가본 북한유물박물관』, 한림출판사, 55면)			
13	표피도 2폭, 지본수묵, 각146×41cm, 프랑스국립기메동양 박물관			×
14	표피도 2폭, 지본수묵, 각76.2×46.5cm, 프랑스국립기메동양 박물관			×
15	표피도 8폭 병풍, 지본채색, 각56×34.5cm,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942)			×
16	표피도 8폭 병풍, 지본수묵, 각44×91cm,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1315)			×

물성과 환영: 조선시대 호·표피 운용과 그 시각적 재현



〈그림 12〉 벽장이 찍힌 사진엽서, 부산박물관



〈그림 13〉 〈호피장막도〉, 지본채색, 128×355cm, 리움미술관



〈그림 13-1〉 장막을 건 고리와 끈



〈그림 13-2〉 금속제 고리



〈그림 13-3〉 목재 책상과 책장의 나이트

그렇다면 이러한 표피도 병풍은 어떤 배경에서 제작된 것일까? 다른 민간 병풍의 화제가 대부분 궁중 회화에서 기원한 것과 달리 왜 이 그림은 왕실 문서에서 그物名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에 하나의 단서를 주는 작품이 리움미술관의 〈호피장막도〉이다(〈그림 13〉).³³⁾ 이 〈호피장막도〉의 가장 윗부분에는 장막을 건 고리와 끈의 자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13-1〉).³⁴⁾ 아울러 이 장막을 위로 거둔 금속제 고리에 대한 묘사도 정밀할 뿐 아니라 장막 뒤로 드러난 다양한 기물 묘사도 자세하다(〈그림 13-2〉). 기물은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목재 책상과 책장의 나이트를 그린 木理紋을 표피의 묘사 못지 않게 정세하게 표현했다(〈그림 13-3〉). 이는 화가가 물상의 질감과 촉감을 전달하는 데에 정성을 쏟았음을 시사한다. 사실상 책거리는 2차원의 평면 화폭에 투시도법과 음영법을 활용하여 3차원의 공간을 옮김으로써 시각적 환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책거리 형식을 따른 이 작품에서 촉감과 물성을 강조한 것은 장르의 속성에 충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고려할 때 〈표 2〉에 정리한 표피도

33) 이 유물을 수장하고 있는 리움미술관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호피장막도〉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피’가 아니라 ‘표피’이며 작품의 장르는 책거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작품의 제목을 〈표피장막책가도〉로 수정·명명한 성과도 있다. 정민, 「리움미술관 소장 〈표피장막책가도〉 속의 다산 친필시첩」, 『문헌과 해석』 77, 문헌과 해석사, 2016, 171~184면.

34) 이 작품에 드러난 장막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세현, 「19세기 책가도(冊架圖)의 새로운 경향-〈호피장막도(虎皮帳幕圖)〉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3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8, 196~200면.

병풍은 표피 4마리, 혹은 8마리를 연결하여 장막을 만든 사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16건 안에 이것이 확실히 장막임을 증거하는 고리나 끈의 묘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호·표피를 활용한 용도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호·표피는 요와 깔개의 용도가 가장 흔했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덮개’와 ‘장막’의 기능이다. 1418년 『태종실록』에는 호피와 표피는 민간에서 납공하는 값비싼 물건이니(虎豹皮, 民間納貢價重之物) 잡물을 실어 나르는 데 호·표피를 써서 덮지 말라(馱載雜物, 勿用虎豹皮覆之)는 대목이 보인다.³⁵⁾ 이 기사는 왕실에서 특별한 물건을 덮는 데에 호·표피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1530년 『중종실록』에는 齋室에 칠 표피장막을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한 기사가 보인다. 이에 따르면 ‘사정전의 동서벽에 치는 것은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면 안 되지만, 남북벽에 친 장막은 없어도 무방하여 항상 재실에서 쓰고 있으니 별도의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思政殿東西壁所圍之帳, 則以遮風, 故不可撤去也, 南北壁所圍之帳, 則可以撤去, 常用於齋室, 而不必別造也)’는 내용이 보인다. 이를 통해 사정전에 동서남북을 가리는 표피장막이 두 벌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가져다 재실에서 썼음을 알 수 있다.³⁶⁾ 이 기사를 통해 왕실이 특정 건축의 벽면을 가리고 바람을 막기 위해 표피장막을 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왕실에서는 진짜 표피로 덮개와 장막을 꾸미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표피도 병풍이라는 그림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민간에서 물건을 가리거나 공간을 구획하는 용도로 실제 호·표피를 소유하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실물을 대체함으로써 장막에 대한 시각적 환영을 만들기 위한 병풍 그림이 필요했던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표피 107조각을 연결하여 만든 대형 유물이 있다. 이 〈오얏꽃 무늬를 수 놓은 표피 양탄자〉는 크기가 240×574cm에 육박한다(〈그림 14〉). 명성황후의 구장품이라 전하나, 오얏꽃 문양이 있어 대한제국에서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이것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덮거나 가리고 남을 만한 크기이다. 아울러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왕실이 특수 용도로 구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왕실

35) 『태종실록』 권36, 태종 18년(1418) 7월 20일(무진).

36) 『중종실록』 권70, 중종 25년(1530) 12월 20일(병자).

문서 가운데 1901년 12월 17일 訓令에 따르면 왕실이 내부 소용 표피 20명과 대호피 6명을 급히 구하고 있어 20세기까지도 호·표피에 대한 왕실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⁷⁾



〈그림 14〉〈오얏꽃 무늬를 수 놓은 표피 양탄자〉, 240×574cm, 국립중앙박물관

이에 반해 민간에서는 〈표 2〉의 9번 사례처럼 벽장을 가리기 위한 용도나 마치 장막을 대체하는 용도로 병풍 형식의 표피도를 조성하는 일이 흔했다. 〈표 2〉의 16건의 유물은 단폭, 2폭, 4폭, 6폭, 8폭의 다양한 폭 구성을 보이며, 長屏과 短屏으로 여러 높이가 섞여 있다. 그러나 단폭인 것들도 대부분 병풍에서 산락된 것으로 추정되어 본래는 모두 병풍 형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실제로 벽면을 가려 장막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물건을 가리는 용도로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군의 제목은 ‘표피도’ 보다 ‘표피장막도’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작품군은 왕실에서 만든 진짜 장막 혹은 덮개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시각적 환영물로 조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피도 병풍에 보이는 도안화 된 패턴과 디자인적 고안은 이 그림이 모피라는 실제 물건을 대체하거나 착시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일정 부분 트롱프뢰유(trompe-l'oeil: 눈속임)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도배지 같은 정형화 된 패턴 디자인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촉감이나 물성이 가져오는 사실감을 추구한 靜物畵로서의 개념

37) 『訓令照會存案』(규장각 청구기호: 奎19143-v.1-89) 34a.

이 아니라, 이 자체로서 개발된 하나의 개별 오브제이자 독립적인 문화 상품이었을 것이라 평가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사실상 19세기부터 조선에서는 百衲圖, 百壽百福圖, 평면성이 강조된 유형의 책거리 같이 패턴화 된 디자인과 강박적 반복 도안에서의 풍조가 만들어낸 장르가 새롭게 유행한 바 있다(〈그림 15〉). 이를 시대정신으로 이해한다면 촉감 자체의 전달보다는 디자인적 평면성에 집중한 표피도 병풍 또한 시각주의(visualism)를 추구한思潮의 계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책가도 6폭 병풍〉지본채색, 각 69.3×35.4cm, 교토고려미술관

3. 20세기 호·표피의 매매와 유통

조선시대 내내 민생을 위협했던 호표는 일제강점기에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총독부의 害獸 말살 정책과 함께 내·외국인들의 사냥에 의해 반 세기라는 단 시간 동안 일어났다. 남한 영역에서는 1922년에 마지막 호랑이가 잡혔으며, 표범은 1970년까지 간헐적으로 발견되었다.³⁸⁾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호·표피의 거래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中華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에서 전문 사냥꾼들이 대거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호·표피의 유통 경로가 새로 개척되었으며,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도 바뀌게 되었다.

38) 호랑이의 멸종에 대해서는 엔도 키미오 저, 이은옥 역,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일본인이 밝히는 한국 호랑이 멸종의 진실』, 이담Books, 2009, 60~61면; 경향신문 1970년 3월 6일 「咸安에서 16년 된 표범 잡아」.

전세계적으로 호랑이는 유라시아에서만 서식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구미에는 동양과의 교역 이후로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구미에 유통된 호랑이는 인도와 시베리아 등 일부 제한된 지역을 통해 유입될 수 있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 이후 조선을 찾았던 서양인들은 조선 여행기나 풍물 보고문을 통해서 호랑이와 관련한 기록을 남긴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고종의 侍醫이자 제증원 원장이었던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 1858~1932)은 자신이 조선에 입국한 1884년 즈음에는 고급 호피를 10달러에 구입했으나, 1908년 경에는 그 시세가 10배가 올랐다는 내용을 『조선견문기(Things Korea)』(1908)에 기록한 바 있다. 알렌은 여기에 덧붙여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조선의 관리라면 저마다 호표의 가죽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실제 알렌이 미국과 일본으로 호표피를 유통한 일종의 거간 역할을 했던 것이 확인된다. 알렌 문서 정리·해제 사업 결과에 따르면 1886년 알렌은 호·표피 18장과 13장을 각각 미국의 한 상회로 보냈으며, 1900년 9월 14일에는 호·표피 가격을 75엔 정도에 구매하겠다고 내용의 서한을 남긴 바 있다.³⁹⁾ 한편 미국인 그리피스(W.E. Griffis)는 1882년에 간행한 『조선, 은자의 나라(Corea, the Hermit Nation)』에서 원산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되는 호피가 1년에 500령에 육박했다고 기록했다.⁴⁰⁾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의 호랑이가 이 시기에 남획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일본, 혹은 일본을 거쳐 제3국으로 유통된 조선 호·표피의 수량이 엄청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호·표피가 조선의 특산품이 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한국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에도 호·표피가 전시품으로 출품되었다.

20세기 초반 서울 소공동에서 온갖 서양산 물건을 팔았던 테일러 상회(W.W.TAYLOR & COMPANY)에서 1921년에 발행한 카타로그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호피는 9~12피트 짜리가 300~1000엔이었고 이에 반해 표피는

39) 1886년 8월 28일 「알렌이 모스에게 표범과 호랑이 가죽을 보내는 건」(R2-L1-01-094); 1900년 9월 14일 「알렌이 해리스에게 호랑이 가죽 시세 등을 알리는 건」(R3-L6-05-149); 1886년 7월 10일 「알렌이 모스에게 쿠퍼를 위한 가죽을 보낸다고 알리는 건」(R2-L1-01-083), 『알렌문서』. 알렌이 호·표피를 포함해 다양한 한국 물건을 거래한 데에 대해서는 박희연, 「근대기 미국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의 한국 문화재 컬렉션과 대리수집 활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1, 45~85면.

40) 신복룡 역주, 그리피스 지음, 『은자의 나라 한국』, 417면.

7~10피트 짜리가 150~300엔이었다.⁴¹⁾ 1920년대 100엔은 현재 180,000엔 정도의 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로 따지면 작은 표피는 300만원 정도인데, 이에 반해 큰 호피는 2000만원 남짓으로 계산된다. 이는 조선시대에 표피가 호피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되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당시 구미에서 호랑이가 표범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 높았음을 방증한다. 이는 20세기 전반 사냥총의 수입, 서양인 사냥인들의 입국, 조선 총독부의 정책적 맹수 사냥에 의해 호랑이 개체수가 급감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질감이 더 부드러운 표피의 사용가치 보다 급감하는 호피의 희소가치가 더 중요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구 시장에서 표범에 비해 호랑이가 더 높은 희소성과 환금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일제강점기에 호표가 식민지 조선을 표상하는 의미로 수용된 것도 주목을 요한다. 호랑이는 조선에는 있지만 일본에서는 자생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운용 정책의 일환으로 害獸를 없애려 한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맞물리며 일본인들의 호표 사냥을 부추기게 된다.⁴²⁾ 급기야 1917년에는 야마모토 다다사부로(山本唯三郎, 1873~1927)라는 일본인 실업가가 총독부의 비호를 받아 전국적인 호표의 포획을 단행한 바 있다.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탄광회사와 선박회사를 운영하여 큰 부를 축적했던 인물이다. 그는 총독부의 해수 구제 정책을 후원한다는 명분 하에 일본과 조선의 사냥꾼들을 200명 정도 모아 정예부대를 만든 후 20명 가량의 언론인을 동행하며 사진과 記事로서 자신의 행적을 기록했다.⁴³⁾ 이를 통해 엄청난 수량의 야생동물이 포획되었으며, 이 원정대는 호랑이 포획물을 모아서 1917년 12월 7일 경성 조선호텔에서 시식회를 열었다. 이 호랑이 고기 시식회에는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1858~1927) 정무총감을 포함하여 경성에 있던 일본인 및 조선인 명사 120명이 참석했다. 1917년 12월 20일에는 호랑이 고기를 일본으로 가져가 도쿄 제국호텔에서 다시 한번 시식회를 열었다. 이 때는 200명이 넘는 일본의 관료, 군인, 실업가가 모여서 시식회를 가졌다. 이러한 행사는 조선의 호랑이를 잡아 먹는 행위가 식민지 경영에 대한 퍼포먼스로서 역할한 역사를 보여준다.

41) KOREA COMPLIMENTS YE OLD CURIO SHOP, Seoul: YMCA Press, 1921, pp.29~30.

42) 『매일신보』 1927년 9월 23일.

43)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저, 이은옥 역, 『정호기: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의 한국 호랑이 사냥기』, 에이도스, 2014, 44~200면.



〈그림 16〉 1962년 박정희 신년하례식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완전히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호랑이의 가죽은 1960년대 군사정권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공관에서 열린 국가 행사를 촬영한 사진 속에서 虎頭까지 포함한 호피 갈개를 발견할 수 있다(〈그림 16〉). 이는 호·표피가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의미로 사용되면서 20세기 후반까지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활용된 역사를 보여준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호·표피와 그 시각적 재현의 문화사적 의의

호랑이는 인도-벵갈 지역, 동남아 일부, 시베리아, 동아시아 일부에서 서식하는 맹수였다. 표범은 이 지역에 더해 아프리카 남부에서도 서식해왔다. 각 지역에서 호표는 용맹과 벽사의 의미를 갖되, 서로 다른 사회 배경과 결합하며 특유의 문화 전통과 예술적 성취를 만들어냈다. 한반도에서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부터 이미 호표를 구분하여 시각화한 전통이 있었고, 문인화 계열의 猛虎圖·민화 계열의 虎鵠圖에 이르기까지 호표는 다양한 층위에서 시각화되었다. 호표는 비단 생태적·환경적 산물임을 넘어 사회·문화·외교·통상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였으며 호·표피는 상징적인 권위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중요한 물산이었다.

본 연구는 호·표피에 대한 경제사적, 군사사적, 환경사적, 외교사적, 문화사적 의의를 밝히는 한편, 그것이 시각화 된 역사를 검토한 성과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호·표피가 가진 촉각적 물성이 어떻게 시각문화의 산물로 이어졌는가를 조명하고자 했다. 호·표피는 벽사와 招福의 기능, 주술과 사치에의 영역으로 수용되었다. 무엇보다 초상화와 기록화 속에서 호·표피는 권세와 지위를 드러내는 위세품의 기호로 읽혔다. 이 과정에서 호·표피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갖춘 촉감과 독특한 문양을 강조하는 시감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시각화되었다. 실제 존재하는 물건의 감각을 재구하는 것이 호·표피의 촉각적 視幻影을 만드는 데에 가장 핵심 전제였기

때문이다.

전통 사회에서 호·표피는 특정 신분과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호·표피의 소유 여부에 따라, 그것의 촉감을 경험 해본 이와 그렇지 못한 이 사이에는 사회적·경제적 계급의 차가 존재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호·표피 이미지는 그것을 본 적 없는 이, 만져본 적 없는 이에게 시지각을 통해 그 감촉성(tactility)을 대체 감각하게 했을 것이다. 아울러 그것을 소유하거나 경험해 본 이들에게는 그 촉감을 다시금 환기하는 매개로 기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회화 안에 재현하는 행위는 그 차이가 가지는 사회적 변별성과 계급성을 생산하는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이로 인해 호·표피의 시각화는 어떤 이에게는 배타적 차별을 공고히 하는 기제였을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욕망을 대체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표피도 병풍이라는 장르에서는 촉감이라는 감각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 사실주의(naturalism)를 추구한 초상화 장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장르는 병풍 화면 전체를 표피로 가득 채우면서도 표피 패턴의 정형화 및 도안화를 꾀한 성과이다. 이러한

류의 작품은 호·표피를 소유한다는 특권과는 별개로, 진짜 물건과 물성에 대한 ‘시각적 환영(illusionism)’을 파괴함으로써 일종의 ‘표피 도안’이라는 독립된 문화 산물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러한 표피도 병풍의 경우 그 자체로서 유통된 것 외에도 책거리 그림 속의 오브제로서 활용된 작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거리라는 장르는 온갖 사치품, 수입품, 희귀품을 그림에 재현함으로써 책거리 병풍이라는 독립 장르로 유행을 주도한 역사를 가진다. 특히 민화 계열 책거리에는 ‘그림 속 그림’으로서의 호·표피도,



〈그림 17〉〈책거리〉, 지본채색, 온양민속박물관

‘병풍 속 병풍’으로서의 표피도 병풍이 적극적으로 도상화 되었다(〈그림 17〉). 즉 책터미와 함께 여러 물건을 그려 넣어 실제 오브제로 보이게 하는 幻視를 유도한 책거리 병풍 안에 또 한번 표피도 병풍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층위의 도안을 중층시킨 것이다. 이 때 표피도 병풍은 초상화가 달성한 정밀한 촉각적 묘사를 배제한 채로, 그 자체의 패턴화 된 시각성만을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감촉성(tactility)을 통한 幻觸에의 추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각주의(visualism)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시각과 촉각은 感官에 비친 주관적 감각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제 물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각적 대체물로서 역할했는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표피가 가졌던 위세품이자 사치품으로서의 역사, 그것을 시각화 한 역사 모두가 유구한 전통과 다양한 층위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그것을 시각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는 그 장르적 전통과 제작 및 주문 주체에 따라 그 물성에 대한 촉각성 혹은 시각성이라는 감각을 재현하는 데에 있어 집중 정도가 조절되고 타협됨으로써 각각의 회화 장르가 그 계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투고일: 2023.04.28

심사일: 2023.05.15

게재확정일: 2023.06.20

참고문헌

- 국립제주박물관 편, 『(2010 호랑이를 만나다) 어흥 우리 호랑이』, 국립제주박물관, 2010
- _____,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 韓國·日本·中國』, 국립중앙박물관, 2018
- 경산시립박물관 편, 『호랑이 2010년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 테마전』, 경산시립박물관, 2010
- 문화재청 편, 『한국의 초상화: 역사 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놀와, 2007
- 코리아나 미술관 편, 『호랑이가 살아있다』, 코리아나미술관, 2020
- W. E. 그리피스 저,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 김동진, 『朝鮮前期 捕虎政策 研究』, 선인, 2009
- 김호근, 윤열수, 『한국 호랑이』, 열화당, 1995
- 엔도 키미오 저, 이은옥 역,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일본인이 밝히는 한국 호랑이 멸종의 진실』, 이담Books, 2009
-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저, 이은옥 역, 『정호기: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의 한국 호랑이 사냥기』, 에이도스, 2014
- 윤열수, 『민화 호랑이-한국 호랑이의 모든 것』, 가회민화박물관, 2021
- 이가원, 『조선 호랑이 이야기』, 학민사, 1993
- 이상국, 『(삶의 환희를 담은 사냥 그림) 호렵도』, 다할미디어, 2021
- 이희근, 『산척, 조선의 사냥꾼: 호랑이와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구한 잊힌 영웅들』, 따비, 2016
- 호라스 알렌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견문기』, 집문당, 1999
- Marks, Robert. *Tigers, Rice, Silk, and Silt: Environment and Economy in Late Imperial South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Sung, Hou-mei. *Decoded Messages: The Symbolic Language of Chinese Animal Painting*.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2009
- W. W. Taylor & Co.. *Korea Compliments Ye Old Curio Shop*. Seoul: YMCA press, 1921
- 구형찬, 「초점화가 이끄는 환기작용: 조선시대 침호두 기우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0, 종교문화비평학회, 2016
- _____, 「민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에 관한 연구-강우의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7
- 권혁산, 「조선시대 무관초상화와 흉배에 관한 연구」, 『미술사연구』 26, 미술사학연구회, 2012
- 김동진, 「16세기 삼남의 虎豹皮 除役과 防納의 위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역사문화학회, 2013
- 김선민, 「청대 만주족 황실과 만주의 자연자원」, 『명청사연구』 46, 명청사학회, 2017

- 김자영, 「조선후기 호표문(虎豹紋)의 연원과 전개 양상」, 경주대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지인, 「조선후기 虎豹 도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성희, 「18·19세기 동래 왜관 수출화의 제작과 유통: 虎圖와 鷹圖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31, 한국미술연구소, 2010
- _____, 「18, 19세기의 한일 회화교류와 대마도 및 동래 왜관 관련 신자료의 미술사적 분석: 조선 후기 대일교역용 회화에 대한 기존 논의의 보완을 위한 소론」,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 박은순, 「日本 御用畫師 가노파狩野派와 朝鮮 관련 繪畫」, 『미술사학』 3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9
- _____, 「繪畫를 통한 疏通: 새로운 맥락으로 보는 韓日繪畫交流 -일본 다이묘가 소장한 조선 그림」, 『온지논총』 35, 온지학회, 2013
- _____, 「繪畫를 통한 疏通: 가노 탄유(狩野探幽)가 기록한 조선 그림」, 『온지논총』 47, 온지학회, 2016
- 박희연, 「근대기 미국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의 한국 문화재 컬렉션과 대리수집 활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1
-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에 나타난 호랑이 이미지와 표현 고찰: 虎豹猫의 變奏」, 『美術史學研究』 279·280, 한국미술사학회, 2013
- 서인범, 「조선(朝鮮) 호피(虎皮)와 표피(豹皮)의 생산·유통」, 『명청사연구』 50, 명청사학회, 2018
- _____, 「조선 호피·표피의 清朝 진헌」, 『역사학보』 244, 역사학회, 2019
- _____, 「淸 勅使·通官에의 조선 호피·표피 사여와 무역」, 『동국사학』 69,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
- 윤진영, 「조선중·후기 虎圖의 유형과 도상」, 『장서각』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이상국, 「조선후기 호렵도 연구」, 경주대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조선 후기의 호렵도」, 『한국민화』 1, 한국민화학회, 2010
- 정민, 「리움미술관 소장 〈표피장막책가도〉 속의 다산 친필시첩」, 『문헌과 해석』 77, 문헌과 해석사, 2016
- 정연식, 「조선시대의 호랑이와 호환」, 『인문논총』 1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 추원교, 방진희, 「조선시대 판복본 초상화에 나타난 족좌대의 변천과정」,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3
- 하수경, 「한국 호랑이 그림에 대한 一考察」,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 하여주,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피물(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 한성주, 「근세 한·중·일의 貂皮 무역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_____, 「조선과 여진의 貂皮 교역 성행과 그 영향」, 『만주연구』 25, 만주학회, 2018
- 한세현, 「19세기 책가도(冊架圖)의 새로운 경향-〈호피장막도(虎皮帳幕圖)〉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3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8
- 홍선표, 「개인소장의 〈出山虎鵲圖〉-까치 호랑이 그림의 원류」, 『美術史論壇』 9, 한국미술연구소, 1999
- _____, 「萬曆 壬辰年(1592) 製作의 〈虎鵲圖〉-한국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 『동악미술사학』 7, 동악미술사학회, 2006
- Sung, Hou-mei. “Tiger with Cubs: A Rediscovered Ming Court Painting”, *Artibus Asiae*, Vol. 64, No. 2. 2004

Materiality and Illusion: Use and Visual Representation of Tiger and Leopard Skin in Joseon Dynasty

Kim Soo-jin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use of tiger and leopard skin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traditional depiction of them in visual art.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tiger and leopard skin in official portraits, the way they were used in symbol to show the seating arrangement for sitters, and the popular trend of large-scale leopard skin paintings in the late Joseon period. To do so, in Chapter II,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oyal court managed tiger and leopard skins at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investigates the government's "tiger-hunting"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protect the public against wild animals, and explore how the Joseon Dynasty utilized tiger and leopard skins as diplomatic gifts and tribute items.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tiger and leopard skins as ceremonial attire for national events and the significance of gifting tiger and leopard skins to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royal court. In this proces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way tiger and leopard skins were represented in royal records and portraits of high-ranking officials. In Chapter III,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iger and leopard skins were used for the commoners' level. To do 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ext behind the ownership and rental of tiger and leopard skins by the public and shed light on the emergence and meaning of large-scale leopard skin folding screen paintings. Finally, this paper analyzes the symbolic meaning of tiger and leopard skins in the twentieth century Korea and the patterns of their distribution. Through this effort, I hope to shed light on the reasons why the luxurious and prestigious skins of these fierce animals were circulated and visualized in Korean history.

Key Words : Visual Illusion, Tiger skin, Leopard skin, Paintings of Leopard skin, Visualism, tactility